



14면

예수병원개원123주년기념식

전주매일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음 9월 30일) 제289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사람 ·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의 가치'

전북도, 생태문명 컨퍼런스 개최

송하진 도지사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기조강연부터

14개 시군과 '청정 자연 회복' 등 담은 선언식 등 진행

기후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 온 전북도가 생태문명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도는 전북의 미래 방향을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으로 설정한 가운데,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생태문명의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는 기조강연, 선언식, 발제·토론, 소개 등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자용 전북도의회 의장, 14개 시·군수,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김현수 대한국도도시계획학회 회장 및 대도약 도민정책 참여단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유튜브를 통해 컨퍼런스 전체 일정이 실시간 중계됐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친환경, 첨단기술 기업 9개 사의 전시부스가 운영된다.

기조강연은 송하진 도지사, 최재천 이화여대 예과대학 석좌교수이며, 코로나 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하진 도사는 더 늦기 전에

생태문명을 향해'라는 주제로 생태문명이 SDG(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연계되며,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송 도사는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집'을 통해 생태문명을 설명하며, 생태문명은 친환경과 미래기술이 함께 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의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최재천 교수는 '생태문명을 향한 생태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가 글로벌 이슈가 됐으며,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극복이 예전 일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상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문명 선도를 지향하며, 적극 협력한다'는 선언식을 가졌다. 선언문에는 지속, 상생, 순환의 생태문명 가치를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도민 모두가 기후 위기로 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정당한 자연의 회복 ▲더불어 사



전북도는 전북의 미래 방향을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으로 설정한 가운데,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관학연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는 도시와 농촌 만들기 ▲재생에너지 확산 일상 속 주거·생활의 녹색전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등 생태문명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며, 공간대 형성 및 생활 속 실천 확산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발제·토론은 크게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세션당 2명의 발제와 기업사례 발제 2명 등 총 6명의 발제 후

토론이 이어졌다. 송하진 도사는 "생태문명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가치"라며 "도와 14개 시·군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과 함께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생태문명 선도비전' 선포에 이어, 7월에는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생태문명 핵심전략 및 과제도출을 진행해 오는 12월까지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 속 실천사업'을 역점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만성동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6곳으로 ↑

전주시, 3곳 추가 설치
탄소발열의자 등 갖춰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과 인접해 미세먼지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만성지구에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안심 버스승강장이 늘어나고 있다.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해 만성동 일원에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3개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만성동 일원에 설치된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은 6곳으로 늘어났게 됐다.

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3곳의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만성에코리안 지아파트 앞 ▲만성법조타운골드플러스아파트 앞 ▲만성도시상가(만성중앙로 59) 앞 등 3곳에 추가 설치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은 미세먼지는 물론 매연, 한파, 호우 등을 피할 수 있는 밀폐형 쉼터공간으로 조성됐다. 또 탄소발열의자와 에어카튼, 장애인 알람벨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전라북도,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많은 공업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주거밀집지역인 만성동 일원을 안심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올해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린이집 6곳과 노인복지시설 2곳에 미세먼지 방진망을 설치했으며,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신호등 4대를 세우고 식물벽 사업 등을 추진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앞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주변 지형 활용 1~2층 진입 구성 '우수'

대표도서관 설계공모 당선작에 이은영 건축가 작품 등 선정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도는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북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에 대해 당선작 1점과 입상작 2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건축 분야 대학교수 4명, 건축사 3명, 도서관 전문가 2명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관실과 업무관계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3개 작품이 출품됐고, 이 중 세계 유명도서관 중

하나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가 대표로 있는 Yi Architects(이아키텍츠)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이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도서관을 컨셉으로 한 확장 가능한 공간구성과 정적인 건축 형태, 전통적인 근대건축의 상징성을

재안했고, 주변 지형을 활용한 1~2층 진입 구성 및 층간 내부공간을 연계한 점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당선작을 공동 출품한 Yi Architects(이아키텍츠)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입상작(2등)에는 (주)길종합건축사사



무소아엔지와 (주)해미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고, 입상작(3등)에는 건축사사무

소 청음에서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들 입상작을 출품한 사무소에는 각각 보상비 4,000만원과 3,000만원이 지급된다.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전북도 대표도서관은 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2,59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북도청 홈페이지(알람마당-도정소식-공지사항)에 공개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문화예술과(☎063-280-3387)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2021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자연을 품다
To embrace nature

2021. 11. 5 - 12. 5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북예술회관 등 14개 시·군

제13회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21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자연을 품다
To embrace nature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21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21. 11. 5 - 12. 5
서예비엔날레 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서예비엔날레 ② 전북예술회관
14개 시·군 전시장
Sari Arts Center of Jeollabuk-do, Jeollabuk-do Arts Center, The 14 Cities and Counties

주최: 전라북도 | 주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 전주비엔날레

www.biennale.or.kr

행사안내

- 비엔날레 1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 서예 역사를 말한다
 - 나룻길수미
 - 선율 & 울림전
 - 서종화·화중서
 - 융합서예전
 - 시·서·화전
 - 전북서예의 한마당
 - 디자인 글꼴전
 - 디지털 영상 서예전
 - 명서서예전
 - 해외동포서예전
 - 작은 대작전
 - 대한민국 학생서예전
- 비엔날레 2관: 전북예술회관
 - 행렬전각전
 - 천인천각전
 - 기념공모 초대작가전
 - 기념공모 대상작가전
 - 기념공모전
- 연계행사
 - 감람 송성운전
 - 석진 황 옥전
 - 자연에서 배우다(한형서책)
- 부대행사
 - 작가와의 만남
 - 서예는 행운을 싣고
 - 전북서예 유산의 길을 따라
 - 학본체합
 - 나도 서예가
 - 서예 퍼즐놀이
- 특별행사
 - 미디어를 서예가 없으라
 - 미술관, 서예 이야기
 - 비엔날레 서울전
 - 국제서예학술대회
 - 국내학술공모전

• 개막식 (2021. 11. 05, 15:00)과 학술대회 (2021. 11. 06, 09:30)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 온라인 개막식은 전라북도 공식 유튜브(발락정식) 채널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유튜브 채널(서예비엔날레)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